

미샤 포터 교육감이 보내는 최종 가정 통신문

2021 년 12 월 23 일

가족 여러분께,

이번 3 월 교육감이 되었을 때,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했고, 부모로서 자녀를 입학 시켰으며, 직장 생활 내내 근무했던 학교 시스템을 이끄는 영광을 맞아 진심으로 감동 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비교할 곳이 없이 큰 학교 시스템일뿐만 아니라 또한 주목할 만한 다양성 및 학생, 가족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장 뛰어난 학교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뉴욕시 전역의 가정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9 월에 학교 건물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의 사회 및 감성적 필요를 다룰 새로운 지원 시스템,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반영한 교과과정 및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배운 교훈을 축적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되고 올 해 마지막에 제 역할을 마치며 이번 학년도를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곳으로 만들어 준 첫 번째 달과 홈커밍이 가능하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저희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교실이 있는 학교 커뮤니티로 돌아와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함께 우리가 이룬 것이 그 무엇 보다 자랑스럽고 감사 합니다.

저는 저의 예전 동료이자 친구인 데이비드 뱅크스씨가 이제 새로운 교육감으로 저의 역할을 이어 받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만든 진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 저의 마지막 학교 방문 투어에서 한 학생이 “저는 어린 흑인 여학생이며 이런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뉴욕시의 첫 번째 흑인 여자 교육감으로써 성공적인 귀감이 되어 주셨으며 그 어느 때보다 제게 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 직책을 맡으며 만났던 어린 여성들부터 저희 훌륭한 교육 관계자와 뉴욕시 공립 학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변함없는 지원 부서 직원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에 소개한 어린 여학생 같이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꿈을 좇는 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협력하며,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